

중세유럽의 개인도서관

세계 도서관사를 통사적으로 훑어보면 개인도서관의 존재가 사뭇 이채를 띤다. 바빌로니아나 아시리아 등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왕립도서관이나 중세유럽의 수도원 및 대학도서관이 도서관사의 큰 줄기를 이룬다면, 이집트나 그리스, 비잔틴이나 이슬람 지역에서 발견되는 고대의 개인도서관들은, 비록 그같은 큰 줄기에서 한결음 비켜서 있지만, 한 개인의 권력과 부를 상징하는 증거물로서 독특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규모 또한 웅만한 공공도서관 못지 않아서, 가령 바그다드의 어느 아라비아 학자의 도서관은 얼마나 컸던지 장서를 옮기는 데 낙타 40마리가 동원될 정도였다고 전해진다.

이슬람 지역에서 성행했던 개인도서관의 고대적 전통은 중세 유럽의 봉건 사회에서도 그 양상을 달리하며 지속된다. 고대의 그것이 재산이나 장식품의 일종으로 '과시'의 대상이었다면, 중세에 이르러 이제 그것은 학식 있는 개인의 진정한 학문적 필요에 따라 설립되기 시작한 것이다. 다음에 중세 봉건사회 개인도서관의 특징을 개괄한다. 출전은 김세익의 「도서 인쇄 도서관사」(종로서적, 1982).

로마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에 의해 그리스도 교회가 국립기관의 지위에까지 승격했던 시기 이후에는 승정들은 상당한 교양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따라서 각자가 어느 정도의 집서를 가지게 되었다. 3세기경에 교회 신부였던 테르툴리아누스는 자신의 도서관을 창설했다고 전해지며, 5세기 초에 파울티누스의 그의 저택에 독서실을 설립해서 그리스도 교도들에게 공개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동시대의 성 제롬이나 성 아우구스티누스와 같은

학자들은 대단한 도서의 수집가들이었다. 이런 학자들은 신학 문헌뿐만 아니라 일반 고전 그리고 이교도의 문헌까지도 골고루 수집하였다. 5세기에서 6세기까지는 로마 제국의 정치적 부패와 서구의 여러 영주국에 게르만 국가의 창설을 보았지만 문화 전반의 추세는 그리스도 교회가 당시의 지배적인 정신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와 같은 문화 전반의 추세에 따라 승정들이 설치했던 많은 개인 도서관은 마침내 수도원 도서관에 합병되는 경향이 생겼다. 예를 들면, 카시오도루스는 종교상의 저작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저작도 광범위하게 수집했던 서로마 제국의 최초의 인물이었지만, 그의 집서는 비바리움 수도원 도서관에 합쳐졌다. 이베리아 반도의 서고르족의 교회 승정 중에도 대단한 도서 수집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세빌라의 이시도레는 유명하였다. 그는 7세기 초기의 위대한 학자로서 최초의 그리스도교 백과사전을 편찬했는데 그 자신의 개인 장서가 그 사전 편찬 자료에 크게 기여를 하였고, 또 그 자료 수집을 위해 書寫室을 가지고 있었다. 카알 대제의 보좌역이었던 알쿠인은 자신의 큰 도서관을 설립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 도서관은 12세기에 화재로 인해 소실되었다고 한다. 10세기에 고전 사본류의 수집가로 알려진 범황 실베스테르 2세는 거액을 들여서 로마, 이태리, 독일, 벨기에 등으로부터 귀중 도서를 다수 수집해서 풍부한 자료를 소장한 개인 도서관을 소유하였다. 독일에서는 10세기 말에 베른발트가 주택에 신학 및 철학 관계의 고사본류를 수집해서 큰 도서관을 설립했는데 그 도서관에 사서를 두고 지식을 구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자료의 이용을 허락하였다.

중세 봉건 사회에서 교회는 교육-문화에 있어 지도적인 세력을 확립해서 교회 도서관은 고대 도서관의 유산을 후세에 전승하는 데 크나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봉건 사회 후기에는 그러한 문화적 전통에 있어 큰 변화가 일어났다.

13세기경 귀족들간에 학문 존중의 정신이 발달했고 일반 대중들도 교회의 종교적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지적으로 자유로워지려는 정신이 강해졌다. 도시에서는 중산 계급이 대두되었고 문화와 교육이 그들에게 급속도로 보급되었다. 그런 풍조 때문에 자국어로 쓰여진 학술 도서나 풍속 소설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학자들간에는 그리스 및 라틴어 고전을 수집하려는 욕구가 높아 유럽 각지에 산재했던 수도원 도서관을 비롯하여 지중해 연안의 동방 여러 지역에 있는 고사본류를 탐구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학자는 말할 것도 없고 국왕, 귀족, 부호들도 대규모의 도서 수집을 했고 각지에 개인 도서관이 창설되었다. 이에 반해 그 당시 수도원에서는 학문 연구의 정신이 희박해져서 고사본류의 수집과 書寫에 대한 열의가 식어갔다. 이런 관계로 봉건 사회의 후기가 되자 학문 및 연구의 중심지는 교회가 아닌, 연이어 발생한 대학에 이행되고 그 부속 도서관이 도서 수집에 중요한 지위를 맡게 되었다. 또 중산계급들의 지적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욕구 때문에 도시에는 공공 도서관이 발달하게 되었다. 그런 기운이 더욱 고조된 것은 15세기에 있는 인쇄술의 발명 이후였다. 그 보급이 처음에는 문예 부흥의 기운을 촉구함과 동시에 근대 도서관의 발달을 촉구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출판저널

통권 제154호 / 1994년 8월 20일 발행

발행인—정진숙
편집인—전병석
인쇄인—이일수
편집위원—권영빈 김문환
송상용 이중한
편집부장—강철주
기자—정혜옥 이성수
김중식 배은희
디자인—윤정자
사진—김홍진

업무차장—윤동호
업무·광고—이희천 최병천
김유희 김동필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재)한국출판금고
인쇄처—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타이피아

출판저널-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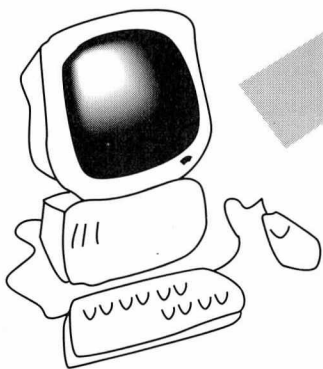
「출판저널」은 서평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매호 「독자서평」을 고정란으로 두고 있습니다. 신간 가운데 감명깊었거나 값지다고 생각되는 책을 골라 서평 형식으로 정리한 글을 보내 주십시오. 원고 분량은 2백자 원고지 6매 안팎이며 책명과 저·역자명, 출판사명 등을 명기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심사를 거쳐 본지에 게재되며 교료도 따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출판저널」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합니다.

본사의 지료용지로 1년치 구독료 3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맥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료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료용지에 본사 지료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붙일거나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독립해서 매킨토시 편집 대행 일을 해볼 생각이 있었다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금 전화 주십시오. (선착순 접수 마감). 무리한 장비 구입으로 자금부담과 시행착오를 겪지 마시고, 최상의 입지 조건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뒤)에서 쉽게 시작하십시오.

전화 02-723-4115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뒤)

매킨토시 편집 경력자가 맨손으로, 당장 자기 사업을 시작하려면 얼마나 들까요?

40만원 만 들이면 사무실과 모든 집기에 레이저 프린터와 스캐너 장비까지 갖춘 작업 환경에서 매킨토시로 편집 대행업을 할 수 있습니다. 딱 네 분께 돌아갈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매킨토시+사무실 임대 다음 장비 및 집기류를 내것처럼 쓸 수 있습니다.

- ◆ 1인당 매킨토시 1세트(응용 소프트웨어 구비), 책상과 의자가 기본 제공됩니다.
- ◆ A3 용지까지 출력되고 포스트스크립이 지원되는 고품위 레이저 프린터, 플랫 베드형 컬러 스캐너, 전화, 팩시밀리, 응접세트, 냉장고, 기타 사무실에 딸린 일체의 집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공동사용).
- ◆ 임대조건: 월 40만원(보증금 40만원)